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7호 (2023.07.14)

■ 이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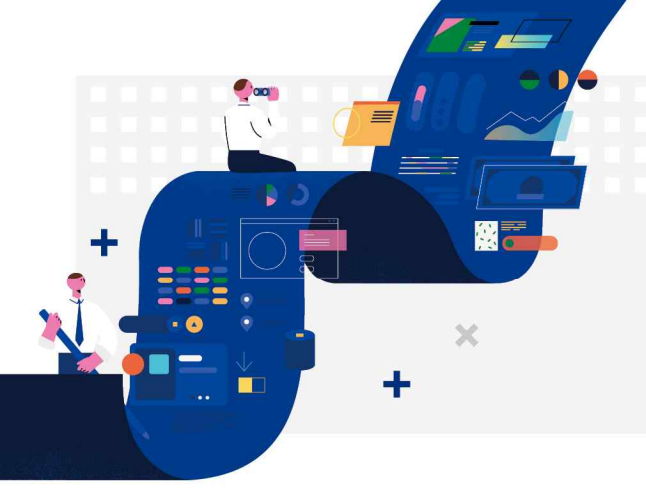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경기) 2023년 상반기

인천시 수출 동향 점검 및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7호 (2023.07.14)

Cotents

I. 이 슈

(경기) 2023년 상반기 인천시 수출 동향 점검 및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교통) 대중교통 이용부담 경감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시행 11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자율성 증대 11

(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12

(지역)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12

(경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한 12억 원으로 확대 13

(경기) 6월 소비자물가 2.7% 상승...21개월 만의 2%대 진입 13

(세제)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14

(교육) 복지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 5곳 선정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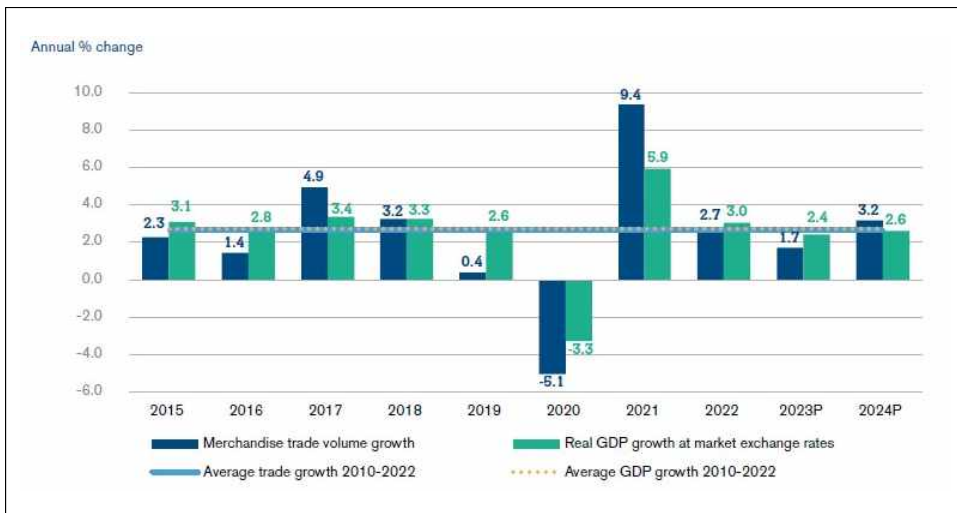
경기

2023년 상반기 인천시 수출 동향 점검 및 시사점



#글로벌시장 둔화 #무역체제 #무역적자 #수출전략 #신시장 발굴 #품목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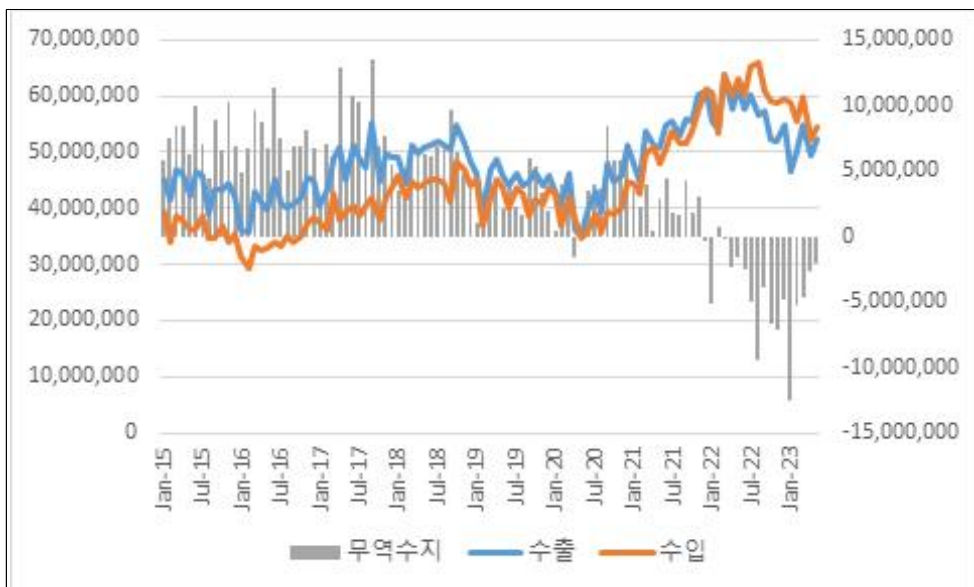
- 최근 해외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및 중앙은행의 긴축통화 정책,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 세계경제 블록화 등의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무역경기가 둔화
 - 2023년 1분기 국제무역은 2022년 4분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국제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경기의 둔화는 2023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UNCTAD, 2023.06)
 - 2023년 하반기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경제전망 약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부채 안정성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물류비용 감소 △미국 달러화 약세 △국제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개선 요인을 압도하여 국제무역 시장 전망이 부정적
 - 코로나19 시기 전후로 백신, 반도체, 에너지 등의 공급 차질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정책이 추진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고 있는 점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녹색전환(green transition)정책, 주요국의 산업생산 감소 역시 국제 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자료 : WTO(2023.04)

[그림 2] 연도별 국제무역 및 실질 GDP 증가율 전망(2015~2024)

-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12월 이후부터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며 무역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 폭은 점차 감소
 - 2023년 1월~5월 수출액 누계는 약 25,30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 수입액 역시 약 28,050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지난 2022년 약 845천만 달러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약 2,744천만 달러 수준
 -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는 이유는 수출의 회복보다는 무역 수입액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10대 수출입 품목의 대다수는 수출 및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동반 감소한 가운데, 국가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만이 수출 및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44.2%, 17.4% 증가
 - 2023년 1월~5월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은 ①반도체 ②자동차 ③석유제품 ④합성수지 ⑤자동차부품 ⑥정밀화학원료 ⑦철강판 ⑧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⑨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⑩무선통신기기 순
 - 중국, 일본, 호주와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체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및 수입액이 동반 감소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만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 2023년 1월~5월 기준 우리나라 7대 수출대상국은 ①중국 ②미국 ③베트남 ④일본 ⑤홍콩 ⑥호주 ⑦대만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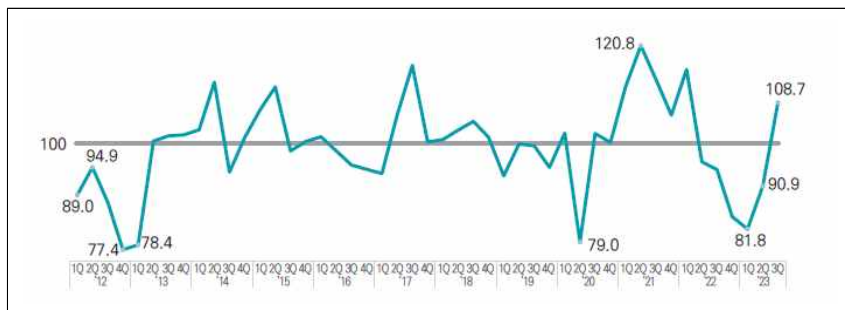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3.06.27. 기준)

* 주 : 동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

〔그림 2〕 월별 무역 수출입 추이(2015-2023)

○ 2023년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 무역경기가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

- 2023년 6월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2023년 상반기 수출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고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국무역협회(2022.12)에 따르면 세계 경제 변화의 주요 요인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러-우 전쟁, 미-중 갈등이 2023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중국 리오픈링(re-opening) 등 대외적인 요건 변화에 따라 국내 수출입 수준이 등락할 것으로 예상¹⁾
- 반면 2023년 6월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경상수지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수출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²⁾
- 무역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전산업 수출경기전망지수가 108.7로, 수출기업들은 대체로 2023년 3분기 수출 경기가 2분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³⁾
 - 품목별로는 선박(135.6), 화학공업제품(129.4), 반도체(128.5) 등의 업종에서 수출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전기·전자제품(77.1), 생활용품(95.4), 석유제품(97.6) 등의 업종에서는 수출 경기 악화를 전망
 - 원자재 가격 및 수출대상국 수요부진 등이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힌 가운데, △수입규제·통상마찰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 △개도국의 시장잠식 등을 우려하는 응답이 2분기에 비해 증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3.06)

* 주 : 100 이상은 경기개선 전망을, 100 미만은 경기악화 전망을 의미

[그림 3] 분기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추이(2012-2023)

○ 인천시 수출액은 최근 1년간 2022년 12월에서 2023년 3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년동월대비 플러스(+)성장하고 있어, 전국 대비 수출 상황이 견조하게 유지

- 2023년 1월~5월 전국 수출입 누계액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인천시 수출액은 같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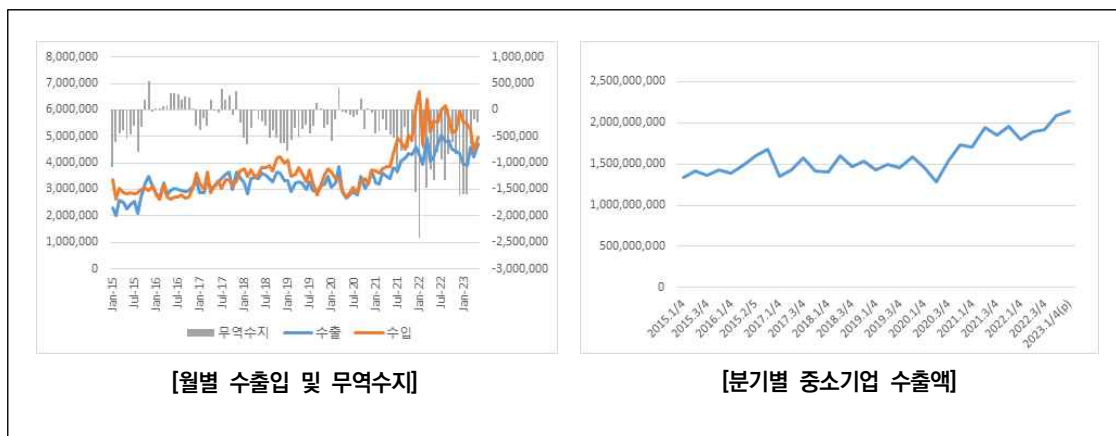
1) 2022년 12월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한해동안 전년대비 수출이 4.0%, 수입이 8.0% 감소하여 국내 무역수지가 1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정부는 2023년 3월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상황 및 반도체 가격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

2) KDI는 「KDI 경제동향」 6월호에서 국내 수출 상황에 대하여 ‘반도체 수출 금액과 물량의 감소세가 일부 둔화되는 가운데 대중 수출감소 폭이 점차 축소되는 등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진단.

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3.06).

0.3% 감소한 2,142천만 달러, 수입액은 10.0% 감소한 약 2,568천만 달러로 타 지자체 대비 수출액 감소 폭이 낮고 양호한 수준⁴⁾

- 같은 기간 인천시 전체 무역적자는 426천만 달러 수준으로, 금년 들어 인천의 주 수입품목인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의 3대 에너지 단가가 하향 안정화되며 무역적자가 개선
- 특히 인천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시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2023년 1분기에는 전기대비 2.1%, 전년동기대비 19.0% 증가한 약 214천만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전국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22년 3분기부터 3기 연속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중소기업 수출동향'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월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좌측은 수출입액, 우측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작성
 2 :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액 그래프는 \$ 단위로 작성

[그림 5] 인천 수출입 동향(2023.05)

○ 2023년 1월~5월 누계액 기준 인천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등이며, 수출액 기준 주요 무역대상국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 순

- 인천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반도체,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의 상위 3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 44.2%를 차지하여 수출 품목 분화도가 전국 대비 낮은 수준⁵⁾
- 10대 수출 품목의 2023년 1월~5월 무역수지 누계액은 약 798천만 달러로,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9개 품목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인천시 전체 수출액 중 약 45.5%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로, 주요 수출국별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자동차(미국), 농약 및 의약품(일본, 철강판(인도) 등

4)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17개 지자체별 2023년 1월~5월 간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대구(23.0%), 경남(4.9%), 광주(0.4%), 인천(-0.3%) 순으로 높고, 충남(-36.1%), 세종(-33.5%), 전남(-24.7%), 제주(-22.9%) 순으로 낮음.
 5)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2023년 1월~5월 기준 전국 수출 상위 3개 품목의 수출액 비중은 33.6%, 품목집중도는 0.039이며, 인천의 수출액 비중 및 품목집중도는 44.1%, 0.077 수준임. 수출 품목집중도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이용해 산출했으며, HHI는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품목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표 1] 인천 주요 품목별 무역 수출입 추이(1월~5월 누계)

(단위 : 천만\$, %)

구분	2022년					2023년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전체 품목	2,148	26.9	2,853	51.8	-705	2,142	-0.3	2,568	-10.0	-426
반도체(831)	614	58.8	634	64.5	-20	490	-20.1	463	-26.9	27
자동차(741)	174	-9.7	10	-13.1	163	289	66.2	11	8.7	277
농약 및 의약품 (226)	179	76.7	48	132.8	131	169	-5.8	54	12.7	114
철강판(613)	161	34.2	29	9.0	133	129	-20.1	29	1.5	100
건설광산기계 (725)	71	-4.5	9	20.9	62	89	25.2	10	3.2	79
무선통신기기 (812)	24	-22.2	15	13.9	9	78	221.2	19	24.6	59
석유제품(133)	79	81.6	15	-28.1	65	73	-8.1	37	155.5	36
비누치약 및 화장품(227)	86	-5.4	1	-19.1	86	64	-26.2	1	-16.4	63
자동차부품 (742)	61	9.6	50	-17.5	11	59	-3.3	72	44.6	-13
석유화학 중간원료(212)	48	16.0	0	359.9	48	55	14.7	0	-25.7	5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3.06.29. 기준)

* 주1 : 수출입 품목의 구분은 MTI코드의 3자리 숫자를 이용

2 : 전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2023년 5월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2] 인천 주요 국가별 무역 수출입 추이(1월~5월 누계)

(단위 : 천만\$, %)

구분	2022년					2023년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중국	678	39.4	365	11.3	313	557	-17.8	357	-2.0	200
미국	337	9.2	286	48.5	52	417	23.7	352	23.3	65
베트남	177	31.1	48	32.2	129	145	-17.8	82	71.9	64
대만	91	10.6	302	57.9	-211	85	-6.8	224	-25.7	-140
일본	71	-8.0	192	58.3	-121	82	16.0	167	-13.1	-85
싱가포르	66	55.1	49	31.0	17	72	8.1	32	-34.3	40
인도	44	10.3	22	96.0	23	52	16.8	30	39.0	2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3.06.29. 기준)

* 주1 : 주요 수출대상국은 2023년 5월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7대 수출대상국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2023년 상반기 인천시 수출은 주로 반도체,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격 변동성이 낮은 시스템 비메모리 위주⁶⁾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견조 △단가가 안정적인 의약품 수출 증가세 등으로 인하여 전국에 비해 수출 변동성이 낮은 수준

6) 한국은행 인천본부(2023.03)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는 수출 코드 분류상 위탁생산 전문업체인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일반적인 시스템 반도체뿐 아니라 후공정(패키징, 테스트 등) 작업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천지역은 주요 후공정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

- 품목별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결과 2023년 1월~5월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인천 10대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 및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8개 품목 모두가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것을 확인⁷⁾
 - 인천지역의 10대 수출 품목의 RCA는 △농약 및 의약품(5.48) △건설광산기계(3.09) △석유화학 중간원료(2.60) △비누치약 및 화장품(2.24) △철강판(1.77) △반도체(1.69) △무선통신기기(1.52) △자동차(1.16) △자동차부품(0.72) △석유제품(0.40)
 - 인천시 수출은 중국(26.0%)과 미국(19.5%) 2개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두 국가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인천시 주요 수출 품목이 대부분 높은 수출경쟁력을 보유했다는 점은 지역의 수출에 있어 강점이 될 수 있으나, 수출대상국 및 품목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은 인천시 수출입의 취약점으로 평가
- 정부에서는 6월부터 국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수출 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업종별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7월)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유예 △대규모 수출 전시회 개최 △해외 판촉전 확대 △수출금융 추가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국내 수출구조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소비재 및 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육성할 계획
 - 이에 더해 각 부처에서 역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산업통상자원부, ‘23.06)”,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2차 사업(중소벤처기업부, ‘23.06)” 등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수출기업 지원에 속도
- 인천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수출지원 정책⁸⁾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하며, 지역 기업이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또한 인천 수출산업 구조의 약점 극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대상국 및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
 -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위해서는 인도, 튀르키예 등 최근 들어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신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의 진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수출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개발과 함께, 최근 인천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및 자율주행차, 항공 등의 분야의 수출기업을 육성할 필요

7) 현시비교우위(RCA) 분석이란 특정 국가(지역) 및 품목의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 단위로 했을 때는 $\frac{(\text{지역}/\text{품목 수출액})}{(\text{지역 총 수출액})}$ 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값이 1 이상일 때 비교우위를 갖고, 1 미만이면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

8) 인천시에서는 지역 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단위로 △수출 바우처 △해외인증 △국내외 판로개척 △온라인 마케팅 △수출 보증 보험료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지원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시 및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종류 및 사업 개요 △대상기업 △지원규모 △사업 신청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

제조 >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2023년 5월 기준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대비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약 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이 3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⁹⁾
 - 5월 국내 차량 신규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24.5% 증가한 38.2만 대를 기록하며 수출을 뒷받침하였으며, 차량생산 업체별로는 르노코리아와 타타대우를 제외한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모두 신차 및 친환경차 생산이 확대
 - 내수의 경우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산량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였는데, 국산차의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8.7% 증가한 반면 수입차는 가솔린·디젤 차량의 판매실적 저조로 인해 14.7% 감소
 -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수출량 증가¹⁰⁾와 더불어 유럽 및 북미에서의 판매호조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36.0%, 자동차 수출액은 49.5% 증가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구분	'22.10	'22.11	'22.12	'23.01	'23.02	'23.03	'23.04	'23.05
생산 (증감률)	327,486 (24.2)	379,797 (25.4)	353,405 (10.8)	306,738 (13.2)	343,575 (30.2)	409,806 (35.6)	382,265 (24.7)	382,129 (24.5)
내수 (증감률)	144,363 (15.2)	155,942 (8.4)	161,171 (4.8)	116,565 (4.7)	147,031 (19.6)	165,851 (19.6)	149,374 (4.3)	152,190 (4.6)
수출 (증감률)	208,544 (30.7)	219,489 (22.6)	229,292 (19.5)	200,825 (11.8)	222,934 (34.8)	262,341 (48.0)	247,399 (25.7)	248,755 (36.0)
수출액 (증감률)	49.2 (28.4)	54.0 (31.0)	54.3 (28.3)	49.8 (21.9)	56.0 (45.8)	65.2 (64.2)	61.6 (39.9)	62.0 (49.5)
부품수출액 (증감률)	18.4 (2.8)	18.6 (0.9)	19.9 (-6.3)	17.3 (-16.2)	20.2 (13.3)	20.6 (-5.6)	19.1 (-1.8)	19.4 (-1.0)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3.06.15.)' 참고 및 재구성

* 주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9)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3.06.15)'.

10) 승용차 기준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49.2% 증가한 66,264대, 수출액은 64.3% 증가한 21.0억 달러로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달성.

- **(전국)** 2023년 5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5% 상승한 135.6을 기록했으며,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한 81.4억 원을 기록
 - **(생산지수)**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8%,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한 135.6으로, 지난 2022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차량생산이 낮았던 만큼 생산지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상승
 - **(품목별 수출액)** 국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약 81.4억 원으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기차 등을 포함하는 완성차의 비중이 약 76.2%, 자동차부품 비중이 약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별로 수출액 변동 추세가 차이
 - 친환경차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며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기타 자동차와 전기차의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35.5%, 98.5% 크게 증가하였으며, 승용차 및 화물차 역시 전년동월대비 47.4%, 4.4% 증가하며 수출액 증가를 견인
 - 반면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운반차, 냉동탑차 등을 포함하는 특장차의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8.0%, 자동차부품 수출액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인천)** 2023년 5월 기준 인천지역의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36.6으로 전국지수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2.6% 증가한 약 7.1억 달러 수준
 - **(생산지수)** 인천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약 42.3% 증가, 전월대비 3.7% 감소한 136.6으로, 전국 추이와 유사한 모습
 - **(품목별 수출액)** 세부 부문별 수출액이 대체로 전국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화물자동차 및 전기차의 수출액 추이만 전국 수출액 추세와 차이
 - 기타 자동차(247.5%), 전기차(233.2%), 승용차(105.8%), 화물자동차(18.5%) 모두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특장차(405.1%) 수출의 경우 전국 추세와 다르게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세부 부문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
 - 전국 화물자동차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인천시는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한 1,24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천시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자동차산업 세부 부문 중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3.02	'23.03	'23.04 (p)	'23.05 (p)	'22.05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24.2	142.6	133.2	135.6	114.4	1.8	18.5
인천	자동차 제조업	127.5	152.0	141.8	136.6	96.0	-3.7	42.3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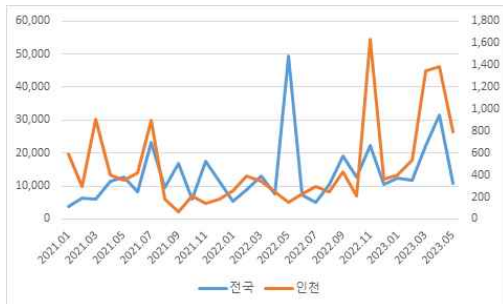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승용차(MTI7411)]



[화물자동차(MTI7412)]



[특장차(MTI7413)]



[전기차(MTI7414)]



[기타 자동차(MTI7419)]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3.05)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05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05.3	-17.7	89.3	-22.3	200.2	57.8	120.8	-10.4	116.8	-11.2	147.6	11.6
자동차	135.6	18.5	135.3	20.5	110.7	22.7	136.6	42.3	133.8	61.6	141.0	27.0
기계장비	107.6	-6.8	108.2	-4.7	148.7	17.4	143.1	-23.1	147.1	-14.8	216.0	101.3
바이오-의약	117.2	-2.2	120.7	5.8	-	-	113.3	-1.8	97.8	7.7	-	-
바이오-화장품	86.7	-16.6	91.1	-10.2	104.8	-6.0	105.5	-9.9	105.5	0.3	90.8	-11.3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26,336	21.2	99,864	-40.4	550	-39.2	19,051	77.9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통

대중교통 이용부담 경감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시행하며,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
 -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참여 카드사 확대 △마일리지 적립횟수 및 월 최대 적립금 증가 △모바일페이 이용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두고 개선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월 최대 적립금 역시 월 11,000~48,000원에서 15,000~66,000원으로 상향
 - 기존 6개 카드사 외에 5개 카드사가 추가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모바일 페이를 이용하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자율성 증대



#교육부

- 교육부가 대학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동 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 이번 개정의 중점방향은 ①경직적 대학운동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②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③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로 시행령의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
 -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과·학부 칸막이 해소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운영 △의대 등 수업연한 선택운영 △온라인 학위과정 확대 등 대학 및 구성원의 자율성을 향상
 -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대학과의 공동과정 △해외대학에의 교육과정 수출 △국내대학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함과 동시에 △산업체위탁교육 확대 △학위심화과정 재직자 참여 △시간제 등록인원 활성화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추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 가능

#환경부

- 환경부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6월 30일부터 공개
 -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클러스터 조성, 운영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
 -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의미
 - 현재 추진되고 있는 5개 클러스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경북 포항) △포스트 플라스틱(부산 강서구) △청정대기(광주 광산구) △생물소재(인천 서구) △창업·벤처 클러스터(인천 서구) 등
 - 향후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처를 발굴·연계하는 등 클러스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 또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를 추진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육성 방향과 투자·일자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량관리제의 탄력적 운영 △수시지정 제도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지방 위임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한 최대 인센티브 제도 시행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R&D 신설·지원 등이 포함
 - 산업부는 동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 한편 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 사업지구의 조속한 개발 추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사업비를 변경했으며, 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의 유치를 위해 6개 업종을 추가

경제 >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한 12억 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 7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왔으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
 -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
 - 시행령에서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가격 요건의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
 -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 주기로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

경기 > 6월 소비자물가 2.7% 상승…21개월 만의 2%대 진입



#통계청

- 통계청 발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며,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
 - 석유류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25.4%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으며, 농·축·수산물(0.2%)의 가격안정과 개인서비스(5.0%) 가격 상승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물가상승률 둔화의 주요 요인
 - 한편 생활물가지수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3%, 4.1% 상승하여, 13개월만에 최저 상승폭 달성
 - 202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성질별 등락률

(2020=100)	품목수	지수	등락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지수	458	111.12	0.0	2.7
상품	310	113.30	-0.1	2.0
농축수산물	78	111.99	-0.1	0.2
공업제품	228	111.41	-0.4	0.2
전기·가스·수도	4	135.58	2.2	25.9
서비스	148	109.22	0.1	3.3
집세	2	103.69	-0.1	0.5
공공서비스	30	102.73	0.1	1.0
개인서비스	116	113.66	0.1	5.0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 현행 TV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
 -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및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시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 가능
 -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인지할 수 있어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 가능
 - 방통위는 동 개정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후보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모 결과발표를 통해 △인천광역시 송도 △경기도 시흥 △충청북도 오송 △전라남도 화순 △경상북도 안동 등 5개 지역을 후보지로 확정
 -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중·저소득국 바이오생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 평가 결과에서 교육시설과 입지, 교육역량 등이 인력교육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5개 지역에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해 우리나라의 바이오 교육역량을 결집할 예정
 - 향후 5개 지역캠퍼스가 협업하여 인력양성 허브의 운영에 참여함은 물론, 연간 2,000여 명의 글로벌 바이오 생산인력 교육 수요를 분담해 수행할 계획
 - 특히 인천에 자리하는 글로벌 바이오 송도캠퍼스의 경우, 인력양성 허브의 지원 재단이 위치하여 주 캠퍼스 기능을 수행
 - 인천광역시와 연세대학교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송도캠퍼스는 연면적 3,300m² 규모로 강의실, 실험실습실, 사무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어 2024년 말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

참고 자료

- UNCTAD, 「GLOBAL TRADE UPDATE - MARCH 2023」, 2023.03.
- UNCTAD, 「GLOBAL TRADE UPDATE - JUNE 2023」, 2023.06.
- WTO,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2023.04.05.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 2023.06.01.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TRADE FOCUS 2023년 9호, 2023.06.20.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년 수출입 평가 및 2023년 전망」, 2022.12.01.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23.06.27.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수지 개선 위해 민관역량 총동원키로", 2023.03.21.
- 기획재정부, "산업 분야 순환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자원 지정 확대, 9대 선도프로젝트 등 추진-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06.21.
- 연합인포맥스, "수출 증가 전환에 무역적자는 축소...커지는 수출 반등 기대감", 2023.06.21.
- 머니투데이, "“수출 반등, 무역수지 흑자 전환 가능할까” 변수는 에너지·일본", 2023.06.21.
-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경제동향 2023.6」, 2023.06.12.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2023년 5월 인천 수출입 동향」, 2023.06.
-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수지 흑자전환 박차", 2023.06.27.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 발표」", 2023.05.17.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중소기업 물류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2023.05.31.
- 한국은행 인천본부, 「최근 대외여건 변화가 인천 수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전망」, 2023.03.
- 인천광역시, 「20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안내」, 2023.04.27.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월 44→60회로 확대", 국토교통부, 2023.06.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학 규제 풀어 혁신 유도...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학과 개설 자율", 교육부, 2023.06.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녹색산업 성장 거점화 박차", 환경부, 2023.06.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한 9억 원→12억 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2023.07.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 소비자물가 2.7% ↑...21개월 만에 2%대 진입", 통계청, 2023.07.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3.07.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부, 인천 송도 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 5곳 확정”, 보건복지부, 2023.07.0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7호(2023.07.14)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7월 14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